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을 꽃피워온 자부심이 넘치는 세포등판건설전투장

긴밀한 협동작전과 실천력으로

인민봉사총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인민 봉사 총국 돌격대는 100여정보의 등판을 개간하고 지력을 높이기 위한 전투를 완강하게 내밀어 다음해 먹이물생산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가고있는 단위로 소문을 내고있다.

이곳 돌격대원들은 비약해온 한해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며 계속 앞장서 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어깨를 들이밀고 결연한 문제를 풀며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기수가 되고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세포등판을 우리 식의 대규모 축산기대 한 번씩 하루빨리 축산물생산을 늘리자면 무엇보다도 축산일군들이 주인이 되어 돌격대의 긴밀한 협동작전을 잘해야 한다. 이런 결심을 굳히고 세포등판건설전투의 첫걸음을 내딛는 축산당위원회책임인민 김광성동무는 등판개간 전투를 실속있게 내밀기 위한 잡도리를 탄탄히 하였다.

그렇다면 개간지에 힘을 넣어야 하는가. 개간지에 나간 그는 축산일군들과 돌격대지휘관들의 모임에 이 문제를 상정시켰다. 여러가지 안들이 제기되었다. 그중에서 지력을 높이는 문제에 초점이 집중되었다. 그렇만 도 하였다. 처음 돌격대에서는

매장을 쓰는 방법으로 등판을 개간할것을 계획하였다. 짧은 기간에 개간실적을 높이면서 적은 흙을 들여 땅다루기와 비배관리를 할수 있는 방도였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개간지의 전면적이 얇은 결층만 부식질로 되어있고 그밑에는 진흙층이었던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부식질이 적은 흙을 그대로 리용하고 떨어지면 뿌리로는 거름도 생산할수 없었다. 혁신적인 방도였다.

그는 즉시 일군들과 함께 등판에 나가 작업량과 거름생산량을 따져보았다. 흙은 좀 들지만 많은 량의 유기질비료를 손쉽게 해결할수 있었다.

그러나 책임일군은 쉽게 결심을 내리지 않았다. 무슨 일이나 방법을 세워가지고 해제야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었기때문이었다. 그는 여러가지 작업조건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에 뿌리를 떨어내는 공정만 기계화하면 현재의 돌격대도력과 물건기제로

도 얼마든지 개간실적과 지력을 다같이 높일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다음날 총국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제기되고 그 수행방도까지 구체적으로 토의 결정되었다. 풀뿌리를 떨어내는 동기계제를 마련하여 시급히 보내주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펼친 책임일군은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이 달도록 뛰고 또 뛰었다. 결과 등판개간을 짧은 기간에 와닥닥 끝내면서 많은 량의 유기질비료원천을 해결할수 있게 되었다.

흙갈이를 할 때였다. 지력을 높이려면 부식질함량이 많은 흙으로 흙갈이를 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일단 전투목표가 세워지자 주저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주변에는 부식질함량이 높은 흙이 별로 없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간전투장에 나와 주변을 둘러본 책임일군은 눈길을 문득 물이 흐르지 않는 두개의 산골짜기에 가닿게 되었다. 그는 호기심을 가지고 이 고장 로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그 과정에 수십년전에는 그 골짜기들에도 물이 흘러내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즉시 돌격대원들과 함께 그곳에 나가 바닥을 파헤쳤다. 물이 흘렀던 산골짜기에는 거머지못한 흙이

꼭 깔려있었다. 흙갈이원천으로서의 알맞춤하였다. 그는 흙갈이를 힘있게 내밀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돌격대에서는 부식질함량이 높은 400여의 흙을 확보하여 많은 면적에 흙갈이를 하게 되었다.

지력을 높이는데 필요한것이 라면 적극적인 보장대책을 지체없이 따라세워 먹이물생산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가고있는것도 경험적이다.

어느날 새로 조성한 인공물판에 나가 먹이물생산정형을 따져보던 책임일군은 한가지 문제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먹이물의 초기작황에 비하여 정모당 생산량이 낮았었다. 알고보니 지난 기간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흙을 넣었지만 아직도 인공물판의 토양속에는 유기질비료가 부족하여 그 원인이 있었다.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총국적인 범위에서 진행되었다. 목표를 높이 세운 일군들은 해당 단위를 긴밀한 협력을 가지고 100의 집집수배설물을 확보하기 위해 나다 밟고나갔다. 그리하여 보름후에는 집집수배설물을 실은 첫 자동차행렬이 현지에서 도착하였고 돌격대원들은 신심에 넘쳐 유기질비료생산을 힘있게 다그쳐나갔다. 토지개발전투를

조직할 때에도 이들은 많은 량의 소석회와 필요하다는것을 먼저 포착하고 집중수송을 조직하여 650여의 소석회를 제때에 보장해주었다.

토양개량제생산을 높이고 그 질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전투에도 일군들은 그것을 돌격대원들만이 아니라 자기들도 무조건 피어해제까지 할 일감으로 생각하고 한사람같이 떨쳐나갔다.

풀베기철이 다가오자 책임일군은 현지에 나가 진기물생산을 앞세우기 위한 실속있는 방도를 찾아보고 강하게 내밀었다. 그에 따라 돌격대에서는 여러의 진기물을 확보하고 포진마다 40t규모의 피어해제기를 만들어 질 좋은 풀기름을 생산할수 있었다. 또한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토양속에는 유기질비료를 넉넉히 확보하기 위한 전투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결과 모든 포진들에 여러가지 영양원소들이 충분히 포함된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낼수 있게 되었다.

대규모축산기대건설을 함께 책임지려는 주민들은 자각과 이신적으로 주동적인 협동작전을 벌려 축산일군들의 힘을 한껏 지원하였다. 바로 이것이 훌륭한 조건에서도 불모의 땅을 넘겨 유기질비료생산을 힘있게 다그쳐나갔다. 토지개발전투를

대성건설에서 앞서나가는 비결

라선시려단 일군들의 사업에서

라선시려단이 살림집과 집집수우리를 비롯하여 평강군사단으로 소문난 평강군사단으로 소문을 냈다. 우승의 영예를 어떻게 지니게 되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깊은 사색과 탐구로 작전과 단산을 면밀하게 하고 옳은 방법론을 세워 모든 사업을 힘있게 믿음성있게 조직 전개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작업조건을 먼저 따져보고 진지한 사색과 탐구로 건설자재준비를 앞세우기 위한 전투를 실속있게 조직하였다.

대성건설과제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려단일군들은 필요되는 모든 건설자재를 자체로 해결하는 문제를 놓고 아머차하였다. 막달로부터 세멘트, 혼석, 강재, 지붕재 등 그 량은 엄청났던것이었다.

이때 려단장 김철범 동무가 제함을 믿고 펼쳐나서던 못해낸 일이 없게 하면서 두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선 막달과 혼석, 목재 등 활조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체로 해결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시와의 긴밀한 관계에 따라 건설자재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즉시 일군들은 현지를 답사하고 협의회를 다시 열었다. 그리고 막달과 혼석을 확보하기 위한 분담을 하였다.

려단시공참모 김철진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하천을 뚫으면서 며칠만에 많은 량의 막달원천을 찾아냈다. 그리고 도로건설을 앞세우면서 제석장과 골짜기채취장을 마련하고 로력을 집중시켜 북서불일면에서 건설자재를 모두 확보하는 방도도 내놓았다.

이때 정치부장 리영호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건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축산기대리용에도 리용할수 있게 도로를 견고하게 건설할 목표를 세웠다. 그래서 2000여m의 구간에 1000여m의 막달을 깔고 도로면정리를 짧은 기간에 끝내도록 하였다. 그리고 도로공사를 끝낸 다음에는 단위별로 담당구간을 정해주고 정산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돌과 혼석을 채취하여 실어들이기 위한 수송전투를 조직하였다. 성과가 확대될 때 려단장은 돌격대원들과 함께 현지에 나가 100m의 목재를 해결하였다. 결과 려단에서는 한달 동안에 맡겨진 전투과제를 넘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의 책임일군들이 마감건설을 확보하여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틀어쥐고 완강하게 밀어

주었다. 그리고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제때에 보장해줌으로써 외부감공사를 제기일내에 끝낼수 있게 하였다.

흙이 들어도 집을 보장하기 위한 문제를 중시하고 혁신적으로 실천해나간것으로 긍정할만 한 것이다.

지붕재를 씌울 때였다. 려단 참모장 박정철동무와 시공일군들은 먼저 지대적용성과 기성기 후조건을 따져본데 기초하여 톱마루기와를 씌울 때 면적부위를 3cm정도 더 늘리자는 안을 제기하였다. 그것은 살림집지구가 바람이 수평으로 부는 지대여야 장마철에 기와들의 면적부위로 세 비바람이 스며들수 있다는것을 고려했기때문이었다. 계획된 자재가 초과되는것을 두고 생각을 깊어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이때 려단장은 흙이 들어도 건설물의 질을 높이는 데는 한치의 양보도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지붕재의 우기를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모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여러가지 작업공구들을 만들어 리용하도록 함으로써 불모땅이 되고 콩크리트의 집을 보장하는데서도 성과를 거두게 하였다.

타산을 치밀하게 하고 옳은 방법론을 세워 모든 일을 실속있게 내밀 때 언제나 성과는 크기가면인것이다. 려단이 대성건설에서 앞서나간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손색없이 조성한 100정보 플판

활해복도려단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축산기대건설을 앞세우기 위하여야 합니다.》

황해북도려단에서 평강군 신정리지구로 새로 조성한 먹이물판이 세포등판건설전투장의 굳건한 건설자재와 돌격대원들모두의 눈길을 모으고있다.

기름진 피이물발

려단이 맡은 개간지는 잡초뿌리까지도 제대로 뽑지 못하는 곳은 진흙층으로 된 불모의 땅이었다. 정치부장 김광성동무는 플판조성사업을 앞의 용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당당히 실현하기 위한 중요전투과제로 제기하고 혁신적지시사업을 드세게 밀어내었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애국의 마음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들은 등판을 갈아내고 발갈이를 2~3회까지 하면서 잡초뿌리를 말끔히 제거했다. 그리고 2600여의 토양개량제를 실어냈다. 뒤따라 장모양 5t의 흙보산비료와 소석회, 10t의 니탄을 밀리로도 잘고 발갈이를 한 다음 오리새, 자주꽃자리풀, 토끼풀을 비롯한 9종의 먹이물씨를 뿌렸다. 또한 본원이 3~4개정도 나왔을 때부터 가을까지 이미노산비료원소복합비료, 노소비료

를 각각 3회씩 잎덧비료로 주었다.

플판건설에서는 비배관리를 가을철까지 내밀어야 먹이물을 왕성하게 자랄수 있다고 하면서 장마철 무더기비가 쏟아지는 속에서 7~9회까지의 길베기를 하였다. 결과 오리새는 무를우를 첫고 자주꽃자리풀, 토끼풀을 비롯한 다른 먹이물들도 잘 자랐다. 한해에 3번정도 가을하는 오리새를 처음 베었을 때 정보당 7t을 생산하였다. 점차 수확고가 높아지면서 마가늘에는 총 25t이상 생산할수 있었다. 이들이 조성한 100정보의 먹이물판에서 많은 축산물이 쏟아지게 되었으니 누구인들 찬사를 아끼지 않으랴.

사양관리에 유리한 방목도로

먹이물판에 난 방목도로는 집집수들의 사양관리조건에 알맞게 질적으로 건설되었다. 방목도로는 풀먹는집집수들이 영양가 높은 여러가지 먹이물을 충분히 먹을수 있게 연 수리구간에 건설되었다. 려단장 정영광동무는 집집수들의 사양관리조건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풀먹는집집수들이 등판을 힘겨 밟아도 손쉽게 풀을 먹을수 있게 도로위치를 정하고 건설을 내밀기도 하였다.

특 하였다. 그리고 도로를 따라 풀종별도 먹이물편편적을 정하였다. 그리하여 집집수들이 방목지에 들어서면 오리새, 자주꽃자리풀, 토끼풀을 비롯한 9종의 먹이물들을 다 먹을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먹이물을 가을한 후 다시 왕성하게 자라는 기간을 따져보고 방목도로길이를 정하여 어느때나 집집수들의 먹이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방목도로를 따라 열방이나 무도 가르수처럼 심도록 하여 방목효과를 높였으며 먹이와 약재로도 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풀먹는집집수들의 생물학적특성을 고려하여 위생조건을 보장할수 있게 건설하였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습지대의 조건에 맞게 바닥을 깊숙이 파고 막달을 섞어 다짐을 하여 도로를 완성하였다.

푸르싱싱한 방목림

려단에서는 플판구역의 자연기후조건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나무들이 자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방목림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 봄철과 가을철에 돌격대원들은 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들은 나무구멍이를 판 다음 그속에 고인 물을 말끔히 없애고 부식

질이 많은 흙에 진기름을 섞어 깔아주었다.

그리고 2m이상 자란 나무모를 흙과 함께 떠서 싣고 책임성을 높여 판리하였다.

그리하여 사물들을 99%이상 보장하면서 15만여그루의 나무를 무성하게 자라게 했다. 결과 먹이물판의 연 70여리구간에 오리나무, 아카시아나무를 비롯하여 바람막이효과가 크고 잘 자라는 나무들로 기본방목림, 보조방목림, 경계림을 조성할수 있었다.

먹이물의 초기생육을 어떻게 보장했는가

함경남도려단 흥원군대대에서

많은 량의 토양개량제들이 듬뿍 듬뿍 쌓여져 있었다.

이것을 보며 돌격대원들은 기뻐하였던 것일망정 생각은 달랐다.

과연 이것만으로 풍요한 먹이물작황을 기대할수 있었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대대일군들은 돌격대원들의 드높은 열의가 좋은 먹이물생산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집체적지혜를 합쳐나갔다.

그러던 어느날 대대장 최창호 동무는 이 고장 사물들이 오래전부터 텅텅나서 누에배설물을 비료로 리용하고있는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호기심이 부쩍 동안한 그는 토배기들과 파 무를을 마주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 과정에 누에배설물은 비료효과성이 매우 높을뿐만 아니라 지시성을 띤다는 것을,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량을 사용하면 수확량이 떨어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것 등을 알게 되었다.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가 누에배설물의 리용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들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들어온 그는 대대일군들의 협의회에 이 문제를 상정시켰다.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의 제기를 적극 지지해나갔다.

주변에 누에를 치는 단위들이 많은 조건에서 조금만 흙을 들이면 필요한 량의 누에배설물을 얼마든지 마련하여 먹이물판의 좋은 결실을 기대할수 있었던것이다.

그리하여 대대에서는 누에배설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진행되었다. 모든 준비가 림을 갖춘 갖추어 지자 대대일군들은 2의 누에배설물을 5의 부식토, 4의 생물활성토, 1의 진기물과 골고루 섞어놓고 하나의 무지로 만든 다음 이를동안 포진에 놓아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이미 제논은 풀을 따라가며 밀리로도 준다 흙 그우에 먹이물씨를 뿌리도록 하였다.

결과를 참으로 좋았다. 씨뿌리를 끝낸 포진에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던 먹이물씨들이 일찍이 돋아났다.

또한 먹이물들이 빨리 한 기상기후 조건과 여러 가지 병충해에도 끄떡없이 푸른 잎새를 한껏 펼치고 잘 자랐다.

누에배설물은 텅텅나서 리용하여도 그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즉 먹이물의 본원이 4~5개정도 나왔을 때 뿌리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포기당 5g정도의 누에배설물을 텅텅나서 주었다면 다른 유기질비료를 리용했을 때보다 영양상태는 인차 눈에 띄게 좋아졌다.

신심을 가지고 분발해나선 대대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집단적열의의 불꽃을 세운지 지퍼를 리며 먹이물비배관리를 더욱 책임있게 해나갔다.

먹이물판에 한대의 잡초라도 생길세라 김베기도 자주 진행하였으며 배수로도 깊숙이 짜주어 큰물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탐험려 심어가꾼 먹이물들이 총아없이 더 잘 자라도록 진기름을 리용하여 잎덧비료주기도 자주 진행하였다.

애는 보람으로 오리새와 자주꽃자리풀을 비롯한 먹이물들의 초기생육이 안전하게 보장된 결과 올해 대대에서는 플판조성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단

김정일 화전 시 회

중국 대련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2주과 그이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2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6돐에 즈음하여 중국 대련에서 19일 김정일화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위인칭송의 불멸의 꽃들이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대원수별을 형성한 대형미술작품을 배경으로 황룡경을 이룬 전시회장에는 김정일화가 국제축전회에서 받은 상장, 메달들을 소개하는 사진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전시회개막식에는 대련시의 판계부민 일군들과 공군이 참가하였으며 시상주체 우리 나라 총령사와 총령사관일군들 등이 초대되었다.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이러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려단시회화복합공화사 총령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조친선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린 김정일동지와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생애와 업적을 감동깊이 돌이켜보게 된다.

오늘의 이 전시회는 김정일동지와 김정숙동지, 김정숙사녀에 대한 중국인민의 호모디의 표시이다.

제8차 당중앙총합회에서 김정일화에 최고상이 수여되었다.

앞으로 중국땅에 김정일화와 김정일화가 영원히 만발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다.

대련시인민정부 립업국 부국

장은 중국인민뿐 아니라 세계인민들이 김정일화의 아름다움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위인의 존함을 모신 김정일화와 같이 진귀한 꽃은 이 세상에 더는 없을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대련시회화복합회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2월의 축하에서도 대양과 같이 붉고 아름답게 피어난 김정일화를 보면서 중조친선의 강화발전을 위해 불멸의 공헌을 하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을 다시금 돌이켜 보았다.

우리는 김정일화연구부급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중조친선전에 적극 기여하겠다.

김정은동지의 령도하에 조선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

실험분석이라고 하면 누구나 아득한 실험실, 거기에 전개된 분석실험실들의 고도로의 동음, 세하인 실험실을 입은 과학자들의 모습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사실 분석연구사업의 특성으로 하여 분석과학자들은 직접적인 연구성과나 생산물은 안아보지 못한다.

하지만 이들의 가슴속에는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이 간직되어 있었다.

분석연구는 과학기술발전의 눈, 공업의 눈과 귀!

말다리가 성한 사람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길을 잘 걸을수 없는것처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공업을 전진시키는데서 물질의 시공간적인 조성과 구조, 에너지적상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분석연구는 눈과 귀와 같다.

분석연구가 없이는 물질의 응용분야를 찾을수 없어나가서 새로운 재료를 얻어내고 리용할수도 없으며 결국 귀중한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없게 된다.

국가과학원 중앙실험분석소 과학자들과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바로 이런 자각을 안고 탐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위한 투쟁에서

탐구의 밝은 눈을 안겨주며 걷는 헌신의 길

국가과학원 중앙실험분석소의 과학자들

이룩된 빛나는 성과들에는 바로 이들의 남모르는 수고와 헌신의 노력이 크게 반영되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과 조국앞에 지닌 사명감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과학연구성공으로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분석연구가 차지하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고 종합적인 분석연구기지를 훌륭히 꾸리도록 하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과 무한한 지도에 의하여 주체 72(1983)년 12월 21일 중앙실험분석소가 창립되었다.

분석소의 전체 과학자들과 일군들, 종업원 들은 지난 30년간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대로 나라의 분석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이 나날 이들은 나라의 국력을 강화하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긴절한 분석문제들을 해결하며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나라의 종합적인 분석연구기지로써의 사명에 맞게 전국적으로 제기되는 분석문제들을 제때

에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의뢰 분석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왔다. 그리하여 해마다 전지재료, 금속 및 비금속물질, 유기물질 등에 대한 수천건의 분석을 신속정확히 보장하고있다.

현재 분석소에서는 과학자들의 피라는 사색과 탐구의 결과로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분석실험실들을 부단히 건설, 현대화하고 분석기술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감으로써 나라의 자위자의 특성에 맞게 우리조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제기되는 미지물질을 비롯하여 초미량수준의 어렵고 힘든 대상들에 대한 분석문제를 매우 높은 수준에서 풀어나가고있다.

새로운 분석방법들을 개척하고 확대도입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여러가지 분석실험실들과 분석장치들도 개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여러가지 천연연료생물체들의 유효성분들과 나노재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첨단재료들의 구조분석도 막힘없이 해가고있으며 현존분석실험실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금속동위원소분석방법도 새롭게 확립하였다.

아미노산, 비타민, 당 및 핵산 관련물질들과 생리활성물질들에 대한 분석방법을 확립하여 과학기술문제를 해결한것을 비롯하여 현실에서 절실히 해결

기다리는 문제들을 제때에 원만히 풀어나가 많은 리의를 주었다.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2월 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등에 적극 참가하여 거둔 성과도 대단히 많았다.

누가 알아주진말건 자기들의 피라는 사색과 탐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없이 바치며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눈을 밝게 해주는 가치있는 분석연구결과들을 속속 마련해가고있는 중앙실험분석소의 전체 과학자들과 일군들, 종업원들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와 경애하는 원수님들께서는 이들의 연구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그들속에서 중앙실험분석소에서는 공음과학자, 후보원사, 교수, 박사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며 분석소는 나라의 종합적인 분석연구기지로, 판공되는 과학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역할을 믿음직하게 수행해나가고 있다.

꽃길은 창립기념일을 맞은 국가과학원 중앙실험분석소의 전체 과학자들과 일군들,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하에 높은 과학연구성과를 만들어나갈 불타는 열의에 충성되어있다.

본사기자 리명희

이번 주말에 진행될 체육경기 소식

이번 주말 29일(일요일) 육단 너자련투대항경기가 평양체육관에서 여러 차례

개천관람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같은 총정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에 고무된 관부들은 철칙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 정치사업을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로동동맹원 장명일

육단 너자련투대항경기가 10시-12시, 16시-18시에

【조선중앙통신】

같은 총정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에 고무된 관부들은 철칙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 정치사업을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로동동맹원 장명일

